

# 중국, 플라스틱 첨가제 강세 지속

연평균 7% 증가 2007년 수요 35억달러 ... 경쟁력은 여전히 낮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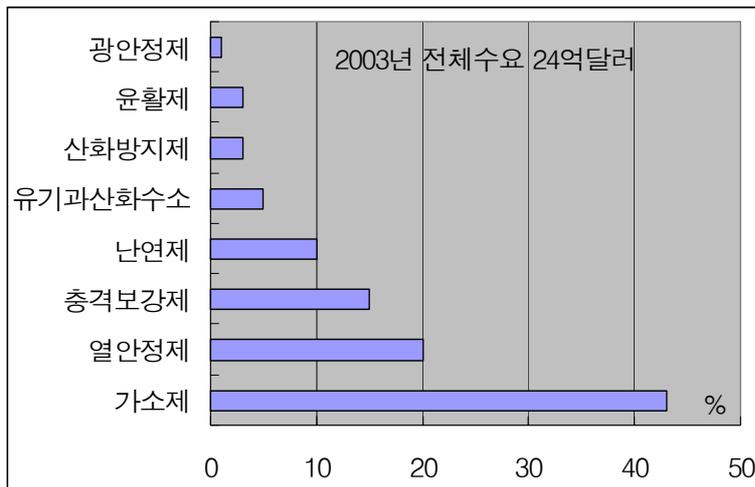
중국의 플라스틱 첨가제 수요가 연평균 7% 증가해 2007년 35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BRG Townsend에 따르면, 중국은 대부분의 첨가제 수요가 연평균 8-10%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가소제 수요가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수요 신장율을 상쇄하고 있다.

중국 플라스틱 첨가제 시장은 건축경기 붐을 타고 Resin 생산량이 연평균 10% 증가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.

대부분의 첨가제가 PVC(Polyvinyl Chloride)에 사용되나 Polyamide, PC(Polycarbonate), Polyolefin, Styrenic 및 Thermoset Resin 분야도 첨가제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## 중국의 플라스틱 첨가제 수요 신장률 전망



자료) BRG Townsend

중국의 첨가제 생산규모는 약 18억달러로 이 중 87%는 자가소비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과 함께 첨단기술 및 특수제품이 유입되면서 수출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

현재 Akzo Nobel, Albermarle, Atofina, Ciba Specialty Chemicals 및 Rohm & Haas가 중국에 합작기업을 설립했다.

그러나 중국 플라스틱 첨가제 시장은 여전히 분산적이며 저부가가치의 범용제품에 치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도 작다.

<화학저널 2004/06/18>